국립민속국악원 공연 자료사진.

다가오는 새해의 무사태평 기원

20일 국립민속국악원서 동지맞이 송년 음악회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단위 관객들에게 전통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20일 오후 7시 예원당에서 '동지맞이 송년 음악회'를 공연한다.

첫 오프닝으로 남원 용성중학교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해 국악관현악 축제와 얼씨구나를 선보이고, 이어 길놀이와 송년 비나리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산조춤 雁行(안항)은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선보인다. 새-나래는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새타령과 민속음악의 근간인 시나위를 자유롭게 표현한 곡이며, 동래학춤은 흰 도포자락이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특별기획공연 작품인 창극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는 구성진 입담과 탄탄한 연기력을 겸비한 창극단이 출연해 주요 대목을 선정하여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예원당 로비에서 '국악그룹 늘솜'의 국악연주로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 종료 후에는 공연장을 찾아주신 모든 관객들에게 동지 팥죽과 새해 달력 나눔 행사를 가진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특별강연회… 가야문화의 의미와 조사성과 선보여

진안군은 10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진안 가야문화유산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곽장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과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초빙교수가 이날 강연자로 나서 진안 가야문화의 의미와 조사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곽장근 소장은 "진안고원 일대가 백제와 신라, 가야 등의 전략상 요충지로 이들 간 주도권 다툼과 교류 관계 속에 백제와 신라, 가야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명일 교수는 최근 진안고원 일대에서 전북가야의 실체를 찾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발굴조사의 성과를 선보이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강연회를 통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야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10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진안 가야문화유산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문체부 내년 예산 5조9233억원 확정… 925억↑역대 최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예산이 5조923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체부는 "정부안(5조 8309억원)보다 925억이 증액된 금액"이라며 이는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10일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가의 핵심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문체부는 예산 편성당시 국민 모두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문화 창작제작 여건 마련 등에 주력해 편성 했다고 밝힌바 있다. /뉴시스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 생긴다 '내년 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전통문화예술 텔레비전(TV) 설립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11월 개국을 목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프로그램 구성, 시험방송 실시 등,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착수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국악뿐만 아니라 한식, 한옥,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전통문화예술은 악(樂)·가(歌)·무(舞)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악방송을 통해 라디오 방송 서비스만 제공되어 왔다. 국악계에서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악 텔레비전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이번 예산 반영은 국악계의 소원 중 하나가 이루어진 셈이다.

전통문화예술을 안방에서 보고 즐길 수 있어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전통문화예술인들의 텔레비전(TV) 진출 확대, 연출가, 작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예술의 수요층 확대 및 소비를 촉진해 전통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핸드폰을 공개하면 모두의 비밀이 드러난다

부안군, 영화 상영의 날 '완벽한 타인' 21일 무료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하루 2회)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완벽한 타인'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완벽한 타인'은 이재규 감독 작품으로, 40년 지기 죽마고우의 집들이를 배경으로 한 현대인들의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완벽해 보이는 커플 모임에서 한정된 시간동안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 문자, 카톡을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불허 이야기를 담았다.

5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올해 한국 영화 흥행순위 3위에 올라선 흥행작품으로, 출연진으로는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김지수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던 베테랑 연기자들의 완벽한 호흡을 만나 볼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파고들며 공감을 이끌어 내고,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폭소만발의 웃음과 탄식으로 객석을 들썩이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보여 군민 모두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예술회관 '완벽한 타인' 영화 무료상영은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에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